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6. 9. ~ 6. 30.

페이지	제 목	비 고	유형
2	진주시 농업인대학 현장연수... 농업자재 회사·연구센터·스마트팜 농장 등 방문	신아일보	인터넷
3-6	최첨단 스마트팜 장애인 청년농부들 “장애 잊고 예쁜 식용꽃 키워요”	중앙일보	인터넷
7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 가동	뉴스핌	인터넷
8-9	포천시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협약 체결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
10-11	경북도 농기원,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위해 4개 기관과 협약	브릿지 경제	인터넷
12-13	농어촌공사, 농어업인 소득향상 위해 혁신... 스마트팜 인프라 확대 등 추진	전자신문	인터넷
14-15	[단독]KT,삼선전자와 드론 활용해 인도 스마트팜 시장 공략	조선비즈	인터넷
16-18	스마트팜 구축 지원...신품종 과실 보급... ‘맞춤형 농사’ 로 농촌에 활력 심는다	세계일보	인터넷
19-20	[aT와 함께하는 글로벌푸드 리포트] 하루 채소 1600kg...亞 최대 대만 ‘스마트팜’	헤럴드 경제	인터넷
21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활성화 적극	전북중앙 신문	인터넷
22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	팜앤마켓	인터넷
23-26	[뉴스워커_산업기획] 농사 이제 ‘AI가 짓는 스마트팜 시대 열린다 ‘	뉴스워커	인터넷
27-29	농협은행 스마트팜 종합자금 ‘성공 귀농’ 돕는다	컨슈머 타임스	인터넷
30	농정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키운다	내일신문	인터넷

진주시 농업인대학 현장연수... 농업자재 회사연구센터스마트팜 농장 등 방문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6.30 13:12 | 댓글 0



진주시 농업인대학 현장연수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지난 27~28일 양일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관련 기관과 스마트 팜 농장 등을 찾아 현장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농업인대학 현장연수에서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남해화학 비료 생산 공장을 방문해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료의 생산제조 과정을 교육받고 198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견학하는 등 교육생들이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주)경농 미래농업센터를 찾아 실증 시범포에 전시·활용한 관수 시스템, 작물보호제, 종자 등 다양한 농업 자재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견학을 한 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작물보호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연구원의 특강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김제시 소재 그린팜 아리울 영농조합법인을 견학하여 최첨단 시설을 활용한 시설채소 재배와 경영 성공 사례를 듣고 이틀간의 현장 연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참가한 교육생 K씨는 “현장연수 교육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기술과 시설을 보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내실 있는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작목별 세분화된 이론교육과 교육생 농장 컨설팅, 현장연수 등 실질적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고 농가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학사운영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저작권©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첨단 스마트팜 장애인 청년농부들 "장애 잊고 예쁜 식용꽃 키워요"

[중앙일보] 입력 2019.06.30 07:00

가

고석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서울농원.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농부 7명이 블루베리와 식용꽃 등을 가꾸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담(21), 강법진(26), 이해빈(21·여)씨, 고석현 기자

지난 26일 오전 10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서울농원. '몸빼 바지'를 입은 청년 농부 7명이 노란 메리골드 꽃 가꾸기에 한창이었다. 세 명은 꽃을 수확하고 네 명은 곁에서 조리개로 물을 뿌렸다. 이 가운데 강병진(26)씨가 "아이고~ 바구니가 꽉 찼네. 선생님 저 한 번도 안 쉬고 했어요"라고 하자 옆에 있던 지도사는 "웁지 잘했어요" 하며 칭찬했다.

[함께하는 세상]

자폐·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 7명
서울농원서 식용꽃·블루베리 농사
“사회 약자서 ‘돌봄 주체’로 성장”
스트레스 줄고 생활습관도 바뀌어

이곳 청년 농부는 모두 1~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자폐나 지적장애 등
발달 장애가 있다. 비장애인 지도사
3명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장경언(52) 서울농원 원장은
“장애 정도가 심해 다른 여러

훈련기관에선 입소를 꺼리는 장애인”이라며 “하지만 모두 농장 일에 잘
적응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14년간 장애인
재활교육을 해온 전문가다.



문업 초기라 아직 수확과 판매가 안정적이지는 않다. 생산한 식용꽃 메리골드는 말리는 등 가공을 통해
꽃차로 만든다. 현재까지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은 농장 관계자들이 선물용으로 구매했다. 고석현 기자

서울농원은 서울시립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로 1만2231m²(3700평)규모다.
블루베리와 식용꽃(비올라·메리골드·꽃양귀비 등)·옥수수·딸기 등을 키운다.
푸르메재단이 지난 3월부터 운영을 맡아 지난 18일 본격 개장했다.

이곳의 특징은 또 있다. IC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이라는 점이다. 기후·토양의 상태에 따라 농장의 환경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바꾼다. 하우스 내부와 토양엔 측정기가 설치돼 있어, 실시간 기록을 서버에 전달한다. 서버에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균치를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넘지는 부분을 조절한다. 내부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 더울 땐 보온덮개가 열리고,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장 원장은 "ICT 시설 덕분에 농사 경험이 없고 숙련되지 않은 장애인 농부도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정도의 단순 작업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농부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장 원장은 "약자로 보살핌을 받아왔던 이들이 식물을 돌보며 '돌봄의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고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많은 장애인은 집이나 복지관 등 한정된 공간에서 머문다. 직업 훈련도 대부분 가내수공업 수준이라 운동량이 적다. 하지만 이곳에선 농사일로 온몸의 근육을 쓰기 때문에 '혈기 왕성한' 20대 장애인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생활 습관도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기후·토양의 상태에 따라 농장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팜'이다. 덕분에 농사 경험이 없고 숙련되지 않은 장애인 농부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고석현 기자



토양엔 수분과 염압 상태를 확인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다.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서버로 보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고석현 기자

어려움도 많다. 흐린 날엔 감정 기복이 심해져 소리를 지르거나 한 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도 한다. 그럴 땐 지도사가 장애인을 몇 분간 힘줘 안아주면서 안심시킨다. 강선희(26·여) 지도사는 “장애인 농부들이 안정을 찾아 맡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몇 달간 꽃 수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농원의 남은 과제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다. 농장 운영 초기라 아직 수확과 판매가 안정적이지 않다. 현재까지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은 농장 관계자들이 선물용으로 샀다. 장애인 농부의 평균 월급은 10만원인데, 이달 처음으로 푸르메재단의 지원 없이 농산물 판매 수익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장 원장은 “오는 7월엔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 식용 꽃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농부들이 시민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꽃차만들기·농사짓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 가동

품질향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힘찬 첫 걸음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5:54 /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5:54

가+ 가- 프린트



[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고흥군은 군청 팔영산홀에서 '세계적인 첨단농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단장(김기홍 부군수)을 비롯해 농업축산과장 등 실과소장, 담당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사업설명 및 부서별 협조사항, 성공 다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 발대식 [사진=고흥군]

스마트팜 사업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도와 습도, 햇빛과 이산화탄소 등을 최적의 상태로 변화시켜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추진단은 순천대학교와 협력해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단지'를 고흥만에 30ha,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이 단지는 영농법인·대학·기업·연구소 등이 연계한 기술 혁신 집적단지로 농업생산, 농기계, 농자재, 정보통신, 에너지, 교육 등 전후방 산업 관련 실증 연구,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신품목을 발굴해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청년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스마트농업, 스마트농기자재, 스마트축산, 스마트노지채소 등 전국의 미래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진단 구성원의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한곳에 모아 분야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포천시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6.28 01:54 | 수정 : 2019.06.28 01:54



포천시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협약 체결. 사진제공=포천시

[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27일 포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농업, 유통, 레저가 결합된 스마트팜 빌리지가 조성되면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 도시 개발로 포천시가 목표로 하는 전원형,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조용준 포천시의회 의장, 지영모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최안순지 (사)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집행회장이 참석해 공동 서명했다.



포천시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협약 체결 사진제공=포천시

이들 참석자는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경제·문화·관광 교류 등 친선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6일에 열린 '포천시투자유지 설명회'에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인 강림국 오광그룹한국동사장 등 40여명의 중국 기업도 참여해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kd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경북도 농기원,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위해 4개 기관과 협약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 및 의성·군위지사 ~의성군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체결

청년농업인 농지 구입·임차 등 영농 정착 업무지원, 상호 협력 통한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 기대



경북도청년일자리만들기 홍보전단 (경북도제공)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8일 농업기술원에서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와 함께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등 4개 기관이 실무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 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보유한 토지 등을 청년들에게 알선해 창·농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지매입에 도움을 주고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전문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프로젝트 중 농업 분야 청년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은 전문 기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거쳐 의성지역에 일정 면적이상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 영농에 정착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스마트팜 아카데미를 개강하고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딸기 수경재배 등 전문적인 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최첨단 딸기 스마트팜 온실에서 1년간 창업 실습교육을 받고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정착할 청년들이 농업 분야 스마트팜 창업을 통해 농촌에서 꿈을 안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 청년창업 희망자들이 필요한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의성=이재근기자 ijk57925@viva100.com

농어촌공사, 농어업인 소득향상 위해 혁신...스마트 팜 인프라 확대 등 추진

발행일 : 2019.06.27



한국농어촌공사가 스마트팜 등 미래형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농어업인과 사업 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고 고령농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7일 행복농어촌프로젝트하이브 행사에서 공사 주요 혁신안을 발표했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7일 KRC 아트홀에서 열린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High Five)' 선포식에서 "국민의 안전, 농어촌의 희망과 미래,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그리고 현장경영을 중심으로 공사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고령화와 마을공동화,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어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다.

농어촌공사는 5개 중요가치로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경영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전략과 계획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농어업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고령화와 마을 공동화에 대응한다.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내순환경제 활성화와 미래형 신기술 도입을 비롯한 농지다각화 시범모델을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경영을 공사주요가치로 선포했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사장 직속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해 현장안전과 재난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용수이용체계 개편 등 수자원확보 다각화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관리, 수질개선사업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과 부채농가 재기를 돕는 경영회생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농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지연금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의 기술과 인력, 보유자원을 활용해 농어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상생의 동반자로서 농어민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 마을발전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인력을 보강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 조직의 유연성을 높인다. 지역주민이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110여 년간 농어촌과 함께해 온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쌓아온 기술력이 있다"라며 "기존 사업 한계를 뛰어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High Five) 설명. [자료:한국농어촌공사]>

함봉근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단독] KT, 삼성전자와 드론 활용해 인도 스마트팜 시장 공략

조선비즈 | 이경탁 기자



입력 2019.06.25 14:54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인도 스마트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업혁신을 추진 중인 KT (28,350원 ▲ 150 0.53%)와 중국 대신 인도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 중인 삼성전자 (46,350원 ▼ 250 -0.54%)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관측이다.

25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가 자사 드론 플랫폼 '스카이십'에 삼성전자 5세대(G) 이동통신 솔루션을 탑재해 인도 스마트팜 사업 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십은 헬륨 가스로 채워진 비행체와 프로펠러 추진체를 결합한 비행선 형태의 드론이다. 헬륨가스를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풍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5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5G로 연결된 KT 5G 스카이십이 서울 광화문 광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KT 제공

특히 재난 분야, 농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스카이십을 통해 대규모 경작지를 관리하고, 병해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KT 스카이십 협력사 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위해 임직원 대다수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하기에는 초기 단계지만, KT가 인도 현지에서 스카이십 서비스 활용 분야로 스마트팜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T는 2018년 10월 '인도 모바일 콩그레스(IMC)'에서 5G 기술을 적용한 스카이십 시연을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시연엔 5G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단말기(CPE)와 360도 회전 카메라가 장착됐다.



인도는 전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이지만 1인당 농업 생산성은 떨어진다. /플리커 제공

인도의 경우 한국의 33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과 13억이 넘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 인력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며 쌀 수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1인당 농업 생산성은 높지 않다. 가구 소득이 비농업 종사 가구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 기반의 스마트팜이 확산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KT는 2018년 11월에 아랍에미리트 코르파칸에 글로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개소하며 중동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ICT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FAO 총회에서 "ICT, 5G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다면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인도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올해 3월 시장조사업체 TRA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인도에서 소비자 중심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9위에 그쳤지만, 1년 만에 8계단 뛰어올라 '인도의 국민 기업'인 타타모터스(2위),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애플(3위)을 제쳤다.

스마트팜 구축 지원 … 신제품 과일 보급 … ‘맞춤형 농사’로 농촌에 활력 심는다

농정혁신 팔 걷은 순천시 / 민·관·학 연계 ‘희망농정소통위원회’ 가동 / 농업현장 작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 /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2020년 건립 / 장·김치 등 전자상거래로 수출도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늘려 도농상생 도모 / 인력난 해소 ‘품앗이 센터’ 설치 나서

입력 : 2019-06-27 03:00:00

수정 : 2019-06-26 21:06:08

가

가

전남 순천시는 농촌과 도시가 통합된 도농복합 도시이다. 농업은 생태 도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순천시는 올해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는 농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혁신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 소득창출과 농업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농정을 펼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남 순천시 로컬푸드 1호 직매장 '순천만국가정원점' 내부 모습.
순천시 제공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출범

순천시는 농정혁신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를 비롯해 농업인, 지역대학, 교수,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를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소통위원회는 농산물 생산기술분과, 농식품 가공유통분과, 농촌 활력복지 분과 3개 분과 45명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했다.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는 분과별 농촌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제도개선, 농민수당 등 농업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에 제안해 농업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시 농업정책에 반영해 농업인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농정 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 김치음양한정남순천시'최광농장 스마트팜'소속위원들이 협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발효 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순천시는 혁신 농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발효 식품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도농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효 식품 산업화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승주읍은 순천시와 통합으로 슬럼화된 곳이다. 지난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타당성 용역과 건립부지 확정 등 건립 기반을 마련한다.

발효 산업과 관련된 연구센터와 우리 술, 김치류, 장류 등 해당 산업들이 집적화되며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 혁신 농업으로 스마트 영농 기반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우리 농가 실정에 맞는 오이 시설하우스 등 원예 재배 농가에 순천형 ICT(정보통신기술)를 추진해 농업인 비용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와 신 품종 과실 보급에 힘쓰고 있다. 신품종 과일인 플럼코트(자두와 살구의 중간교잡으로 만들어진 과일)의 경우 낙안 28농가, 황전 19농가, 월등 24농가, 승주 18농가 등 148농가에서 본격 생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순천의 대표 김치로 육성하고자 고들빼기 연중 생산 재배기술 개발, 미니채소 재배 시범 농가 육성 등 신소득 작목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 도시 순천의 이미지로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ICT 융복합 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한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A대비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만 철새 도래지 등 방역강화로 청정지역 순천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농촌

농촌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한다. 순천시는 신대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매장 3호점은 매장과 식문화체험센터로 건립해 농촌 활력을 가져온다는 전략이다. 로컬푸드 3호점이 개장하면 3만명의 신대지역 소비자와 1000여명의 지역 농가를 잇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로컬푸드는 순천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순천만국가정원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평가'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순천만국가정원점은 2016년 5월 개장 이래 누적매출 145억원을 돌파했다. 소비자 회원 수가 1만5000명에 달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과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귀농귀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귀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귀농인 농지 임대료와 주택구입 리모델링 지원,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 순천형 귀농, 귀촌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귀농귀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농 품앗이 센터 설치

농촌이 활력을 찾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 순천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농 품앗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농 품앗이 센터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발굴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협력으로 농촌뿐 아니라 도시민의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올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농업 소득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의 공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조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 학교 급식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수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정혁신을 통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의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aT와 함께하는 글로벌푸드 리포트] 하루 채소 1600kg...亞 최대 대만 ‘스마트팜’

기사입력 2019-06-24 11:17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예스헬스 아이팜'(Yes Health iFarm)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형 수직 농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콩 지사에 따르면, 14층 선반의 이 수직농업시설은 인공적으로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한다. 이 곳에서는 40종류의 채소와 남아프리카로 수출되는 향신료를 재배한다. 하루에 1600kg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폭스콘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설립한 중국의 스마트팜에서는 하루 2500kg 농작물을 생산한다.

채소와 허브는 대만의 고급 호텔과 에바항공, 중화항공 기내식 재료로 납품된다. 대형유통매장 가르푸에서 샐러드팩 및 기타 야채 제품을 자체브랜드 상품으로도 판매한다. 예스헬스의 제품은 150g 기준 2대만달러(TWD)에 판매된다. 대만에서 유기농 상추 가격은 150g 기준 슈퍼마켓에서 15~28TWD이다.

세심하게 통제되는 재배 과정 덕분에 대장균, 기생충 및 잔류 중금속 및 잔류 농약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회사는 식물에 최적의 영양을 보장하는 자체 효소액을 개발했다. 효소액에는 곤충 퇴치능력을 가진 미생물이 곤충의 외골격과 난각의 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출해 해충을 통제한다.

효소액은 관개 시스템을 통해 콩과 쌀겨, 설탕, 초목회 등 천연 영양분으로 만들어진 액체 비료와 함께 작물에 전달된다. 또 형광 분말가루가 코팅된 12채널 스펙트럼 LED 조명은 햇빛의 역할을 한다.

aT 홍콩 지사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농업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농업환경이 척박한 중동 등은 농업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분야가 진출하기 좋은 신흥시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세미나 및 박람회를 통해 국내의 첨단 농기계 및 스마트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와 수출 상담이 이뤄지도록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활성화 적극

✎ 박정미 | Ⓞ 승인 2019.06.19 18:44 | 💬 댓글 0

도, 사업설명 갖고 지원서 접수
9월부터 작물 재배기술등 교육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전북도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대상으로 19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취창업능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혁신밸리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받게 된다.

도는 농식품부 주관 아래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실습, 경영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교육(입문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을 수강한 후, 경영실습교육 과정에서는 혁신밸리내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기책임하에 1년간 경영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 © 전북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워크숍'

농업인, 청년보육생, 전후방 기업, 관계기관 소통

김승우 기자 fammarket2@gmail.com | 등록 2019.06.17 09:10: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밸리 선정지역 네 곳(경북, 전북, 경남, 전남)이 한데 모여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혁신밸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워크숍은 지자체간 정보교류의 시간(오전)과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혁신밸리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오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난 3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혁신밸리 조성지역 네 곳(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이 처음으로 한데 모이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후에는, 선도농업인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기대' 발표를 시작으로,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시범사업(18~)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생의 향후 창업 아이디어와 스마트팜 전후방기업의 해외진출방안 발표 등을 통해 향후 혁신밸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네 곳이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관계자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향후 농업인, 보육생, 전후방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신밸리 발전방향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eekly기획

[뉴스워커 산업기획] 농사 이제 'AI가 짓는 스마트팜 시대 열린다'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보급 성공 가능성 높아

열정리 기자 | 2580@newsworker.co.kr



승인 20190626 13:36:01



▲ AI가 이끄는 스마트팜 시대는 농촌 인구의 절벽이 진행되면서 절실히 필요한 첨단기술로 보인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달
간

[뉴스워커_산업기획] 농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농장의 환경을 원격 제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제1세대 스마트팜과 달리,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량 증대, 품질 향상 방법을 조언하거나 스스로 재배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제2세대 스마트팜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제1세대 스마트팜은 농장주가 스마트폰으로 넷에 연결된 농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농장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제어하여 농장의 환경을 원격지에서 조절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 빅데이터 활용하는 제2세대 스마트팜(SmartFarm)의 대두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포도를 재배하는 경기 화성시의 제1세대 스마트팜 한 곳은 온실의 온도, 습도, 햇빛, 토양의 수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설정된 환경과 다른 환경이 감지될 경우 즉시 농장주의 스마트폰으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음을 통지한다.

농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인식한 농장주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조작하여 농장에 설치된 급수시설이나 환기시설을 작동시킴으로써 농장의 이상에 대해 대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1세대 스마트팜 도입으로 인해 해당 농장의 포도 수확량이 스마트팜 구축전보다 5%정도 증가했으며 소득 또한 주위 농장에 비해 약 8%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2세대 스마트팜은 제1세대 스마트팜의 기능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농장 경영 전략이나 조언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스마트팜의 시가 직접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제2세대 스마트팜이 수집하는 데이터 종류로는 온도, 습도 일사량, 양분 농도 등의 환경 데이터와 잎 길이, 줄기 굵기 등의 생육 데이터 그리고 생산량, 에너지 비용 등의 경영 데이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세대 스마트팜이 단순히 농장의 환경을 파악하여 사람인 농장주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농장의 환경을 조절했다면, 제2세대 스마트팜은 센서가 농장 외부에서 강한 바람을 인지할 경우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 값의 분석을 통해 시가 스스로 농장의 참론을 알거나 수집된 생육 데이터를 통해 AI 스스로 최상의 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AI 스스로 최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제2스마트팜의 도입으로 인해 경작 경험에 다소 부족한 농민이 농장을 운영할 때에도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아쿠아포닉스, 에어로포닉스 등 스마트팜에 적용될 수 있는 재배 기술도 발전 중

스마트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배 방식으로 '수경재배(Hydroponics)'를 들 수 있는데, 수경재배란 작물을 흙에 심는 것이 아니라 양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양액)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경재배는 각종 센서, LED 조명, 양액의 자동 조절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과 결합되기 쉬우며 자동화 시설을 충분히 갖춘 경우 토지 재배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고 외부 환경과 어느 정도 격리된 공장형 농장과 결합할 경우 병충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도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심 속에서는 작물을 수직으로 여러 층을 쌓아올려 재배하는 '수직형 농장'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수경재배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수경재배방식을 변형시킨 재배방식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와 '에어로포닉스(Aeroponics)'가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쿠아포닉스는 작물에게 필요한 양분은 물고기의 배설물 등으로 공급하고 물고기에게 필요한 수질정화는 작물에게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경재배'와 '물고기의 양식'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는 없다.

해당 재배방식은 작물 재배와 물고기의 양식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물 재배와 물고기 양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BIGH'의 유럽 최대 규모 아쿠아포닉스 농장의 'Ferme Abattoir'에서는 연간 35톤의 농어와 20톤의 토마토, 허브 등의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만나CEA'라는 기업이 아쿠아포닉스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 에어로포닉스는 작물을 허공에 매단 채로 필요한 경우에만 노즐로 작물의 뿌리를 향해 물과 양분을 분사하여 재배하는 방식으로 '분무식 재배'라고도 불린다.

기존 수경재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작물의 뿌리가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에어로포닉스는 작물의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며 토양에서 재배되지 않으므로 잡초와 해충에 의한 피해가 적고 수경재배보다 수직형 농장을 구축하는데 용이하므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노즐 등 추가 설치 시설이 요구되므로 초기 생산비용이 높고 관리 또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2세대 스마트팜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아쿠아포닉스, 에어로포닉스와 같은 재배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한국 농민들에게 스마트팜 보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판로 개척과 다변화 그리고 국산 기술 확보 노력은 필요

최근 3년간 한국의 1~5월 동안 신선, 냉장 토마토 수출량

	2017년 1~5월	2018년 1~5월	2019년 1~5월
수출중량(Ton)	1530	1739(13.7%)	2037(17.1%)
수출액(달러)	406만	476만(17.2%)	569만(19.5%)

▲ 0만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관세청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농업계 일부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작물의 판로 개척, 판로 다변화, 국산 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스마트팜이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므로 작물의 수확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소화할만한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다면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대표 작물로 토마토, 포도, 파프리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한국의 1~5월 동안의 신선, 냉장 토마토 수출량을 보면 수출중량기준으로 2017년 1530톤, 2018년 1739톤, 2019년 2037톤으로 평균 약 15%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액 기준으로도 2017년 406만 달러, 2018년 476만 달러, 2019년 569만 달러로 평균 약 18%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다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작물의 판로를 일정 부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토마토, 파프리카의 수출 시장이 일본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수출량이 극게 변동할 수 있어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스마트팜 관련하여 유리온실 기술은 네덜란드, 연동형 유리온실 기술은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 기술이 생산성을 증가시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판로 개척, 판로 다변화, 국산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의 이점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농협은행 스마트팜 종합자금 ‘성공 귀농’ 돕는다

김백송 기자 song2kb@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6월 19일 오전 10시 33분



▲ 우측부터 정용석 부행장, 김장근 전북영업본부장, 허정수 하랑농장 대표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늘품농장과 하랑농장을 방문해 ‘농업금융컨설팅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늘품농장과 하랑농장은 농업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이 결합된 농협은행의 특화서비스인 ‘농업금융컨설팅’을 받고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 성공영농을 이룬 농장들이다.

이날 간담회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농가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인 중심의 대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두 곳을 방문해 진행했다.

‘농업금융컨설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진단,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최적의 자금을 연계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만의 특화 서비스이다.



▲ 왼쪽부터 다섯 번째 허정수 하량농장 대표, 왼쪽부터 일곱 번째 정용석 부행장, 왼쪽부터 여덟 번째 김장근 전북영업본부장

늘품농장 문성혁 대표는“처음에 귀농이란 것을 너무 쉽게 보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귀농에 도전했으나 당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며 “컨설팅을 통해 농사기술 습득, 귀농지 선택, 지역융화, 판로개척 등과 같이 창업 이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하랑농장 허정수 대표는“농협은행 컨설턴트는 사업계획 수립, 투자분석, 경영지도까지 본인이 농사짓는다는 생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공귀농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금융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농협은행 정용석 부행장은 “전문컨설턴트를 확충하는 한편,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실무교육을 실시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김백송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농정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키운다

2019-06-14 11:00:23 게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스마트팜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농정원은 19일부터 24일까지 4개 권역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 서울 세종 경북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설명회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 장기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개월 장기 프로그램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스마트팜 보육센터 사업은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과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한다. 신명식 농정원장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농업·농촌에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